

해유문서를 통해 본 18세기 서북진의 군비 실태

김효경* · 이해은**

1. 머리말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3. 서북진의 군비 실태
4. 맺음말

1. 머리말

해유((解由)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事務)와 소관물건(所管物件)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해유는 재정(財政), 현물(現物),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으로 호조와 병조의 소관이었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 승진(昇進), 녹봉(祿俸)에 제약을 받았다. 해유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문서를 보면 지방관일 경우 먼저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海道관찰사(該道觀察使)에게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이 있다. 그리고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添付)하여 호조 또는 병조에 ‘이관(移關)’을 하면, 호조·병조에서 관찰사의 ‘이관’(첩정을 첨부한)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유를 하면서 해유 사실을 이조에게 통고하게 된다.[이관],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이조에서 해관원[전임관]에게 조흘(照訖, 解由證)을 발부하게 되면 공식적인 해유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 보통 조흘을 받으면 해관원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관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인사제도, 지방행정, 재정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¹⁾ 이러한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해유문서는 약 100건 정도로 추산되며, 특히 무관직(武官職)의 해유문서는 모두 7건으로 그 수량이 극히 적은 상황이다.²⁾

한편, 조선은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통하여 국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7-8세기를 지나면서 중앙 군영에 집중되었던 군사력은 점차 북방 지역 군사력을 정비하는

1)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5, 201쪽.

2) 현재까지 알려진 무관직 해유문서는 모두 7건이다. 병마 4건, 수군 3건인데 병마 4건은 자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조미은, 「해유문서의 현황과 특징」, 『조선시대 해유문서』, 분당: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2쪽)

구분	작성연도	해유대상	비고
병마	1600년	박의장 경상좌도별마절도사	
	1842~1846년	류억 평안도병마우후	조흘 ×
	1833년	류억 공충도병마우후	조흘 ×
	1791년	최경신 만포진병마첨절제사	조흘 ×
수군	1633년	최진립 경기수군절도사	
	1884~1885년	김용래 부산진수군첨절제사	조흘 ×
	1796년	김경혁 위도진수군동첨절제사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³⁾ 특히 정조는 즉위부터 국방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1778년(정조 2년) 6월 영조의 삼년상을 마친 정조는 첫 조참(朝參)을 받고 4개의 대고(大誥)를 선포한다. 민산(民産), 인재(人材), 용정(戎政), 재용(財用)으로 즉, 백성이 풍요롭게 살며 인재를 키우고 군사제도를 강화하여 국방력을 키우고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조는 “문치(文治)로 나라를 세우고 무략(武略)도 갖추었으나 왜적(倭賊)을 방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도를 다하지 못했고 더구나 사방 국경(國境)에 있어서 혹시 모를 일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자는 싸움을 하지 않을지언정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⁴⁾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실행 여부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북방 지역의 국방 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역사서나 읍지(邑誌), 지지(地誌)류를 통한 간접적인 사료에 의존해 왔다. 물론 17세기에서

3)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韓國文化』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167-199쪽.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韓國文化』 3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97-337쪽.

강석화, 「1712년 朝·淸 定界와 18세기 朝鮮의 北方經營」,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1995, 135-165쪽.

강석화,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強化」, 『규장각』 1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5, 27-67쪽.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內地鎭堡의 변화」, 『韓國文化』 3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339-374쪽.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0

노영구, 「중앙 軍營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60-84쪽.

裴祐晟, 「17·18세기 淸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호, 한국사연구회, 1997, 305-327쪽.

정혜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차문섭, 「조선후기 군제와 국방」, 『동양학』 2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7, 325-332쪽.

4) 『정조실록』, 권5 1778년(정조 2) 6월 4일 임진

18세기의 해유문서나 중기(重紀) 등 고문서 자료를 토대로 한 군비에 대한 실태 연구⁵⁾가 있으나 평안도 지역의 해유문서 1종을 제외하고 모두 한강 이남,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대한 군비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 연구는 1785년(정조 9)에 작성된 함경도(咸鏡道) 서북진병마 첨절제사(西北鎭兵馬僉節制使) 윤빈의 해유문서를 통하여⁶⁾ 길주목 서북진 진영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군비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해 보고, 특히 중요시 되었던 화약병기류의 보유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문서가 함경도 지역에서 작성된 현전하는 유일한 해유문서로서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 북방지역의 군비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서북진(西北鎭)은 함경도(咸鏡道) 길주목(吉州牧) 소속의 진영으로 양산진(陽山鎭)이라고도 하였다. 석축의 둘레는 1,542척(尺)으로 원래 만호(萬戶)를 두었다가 1673년(현종 14)에 함경감사 남구만이 올린 상소(上疏)에 따라 장군파(將軍波)·사하북(斜下北)·덕만동

5) 이현수, 「18세기 말 慶尙道 玄風縣의 軍備 實態」, 『學藝誌』 제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505-5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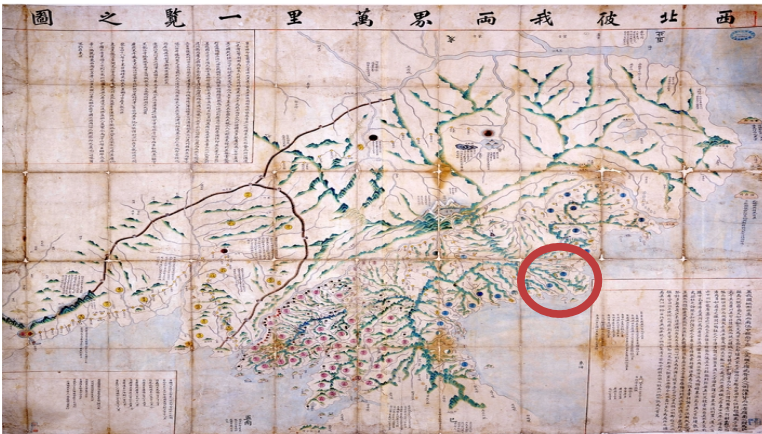
이현수, 「鴻山縣監 解由文書를 통해 본 18세기말 忠淸道 鴻山縣의 軍備 實態」,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121-161쪽.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동국사학』 46, 동국사학회, 2009, 1-33쪽.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水軍 戰船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449-489쪽.

6)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에 구입한 고문서로서,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686.5cm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2장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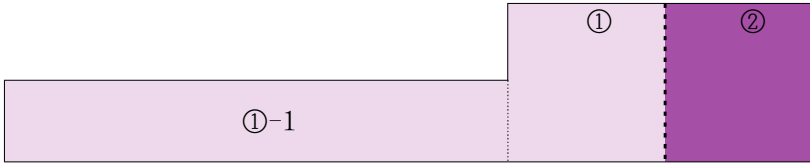
(德萬洞) 등 3개보(堡)의 군병을 모두 소속시키고 진으로 승격하여 첨사(僉使)를 두었다. 이후 1681년(숙종 7)에 큰 수해(水害)가 있어서 성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므로 1749년(영조 25)에 패적교(敗賊橋)의 좁은 목으로 옮겨 설치했다.⁷⁾ 이후 1799년(정조 23) 함경감사와 함경북도병마절도사가 서북진의 좁고 협소한 지형과 모래와 자갈이 많은 토질로 인하여 경작을 해도 수확하기 어려운 형편과 우물이 없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을 정조에게 보고하여 서북진을 장군파보로 옮기게 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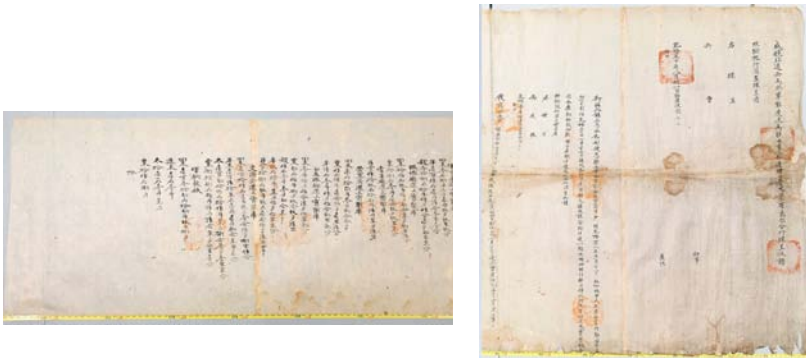
〈그림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⁹⁾상의 길주목 위치

- 7) 『만기요람』, 「군정편」 <관방>. 【吉州】 邑城。周一千一百八十五丈。西北鎮。一名陽山鎮。石築。周一千五百四十二尺。置萬戶。顯宗癸丑。將軍坡，斜下北，德萬洞三堡軍兵並屬于此。陞置僉使。辛酉。大有水害。將有城崩之慮。英宗己巳。移設于敗賊橋隘口。; 『현종실록』 권21, 1673년(현종 14) 12월 30일 을축
- 8) 『정조실록』 권52, 1799년(정조 23) 11월 29일 계미. 命移西北鎮於將軍坡古堡。咸鏡道觀察使具驥、北道兵馬節度使李潤謙狀啓言：“西北鎮基，地勢隘狹，土品沙礫，耕播失利，且無泉井，汲來於數百步外川水，居民見存僅爲三四戶，及今移鎮，不容少緩。將軍坡古堡，關防及農作炊汲，比今鎮基，利害不遑霄壤，且相距爲五里許，則移鎮之役，不至大費民力。今鎮基之高峰、西山、東峰三處烽臺，皆自鎮後山外不見處，轉達邑烽。今若移鎮，則新設南山一烽，西應高峰，北應東山，東應崔世峰，傳準邑烽。則西山烽是疊設，革彼西烽設此南烽，無烽軍加設之弊。” 左議政沈煥之覆奏曰：“道帥臣所論，儘有意見。關防形便既未詳知，輕議移改，非不重愼，而論其事勢，合宜變通。” 右議政李時秀、兵曹判書李在學、將臣申大謙·李漢豐等，皆言其便，從之。

이 문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크기와 내용이 다른 두 장의 문서가 점련(粘連)되어 있는 형태로 전체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686.5cm이고 관인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연결된 두 건의 문서는 내용적으로는 두 단계의 해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①과 ①-1은 후임관이 전임관의 해유를 위하여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에게 올린 해유첩정이고, ②는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가 병조에 올린 해유첩정이다. 문서 각각의 크기는 ①은 세로 80cm, 가로 40cm, ①-1은 세로 40.3cm, 가로 606cm이며 ②는 세로 80cm, 가로 40.5cm이다.



〈그림 2〉 해유문서의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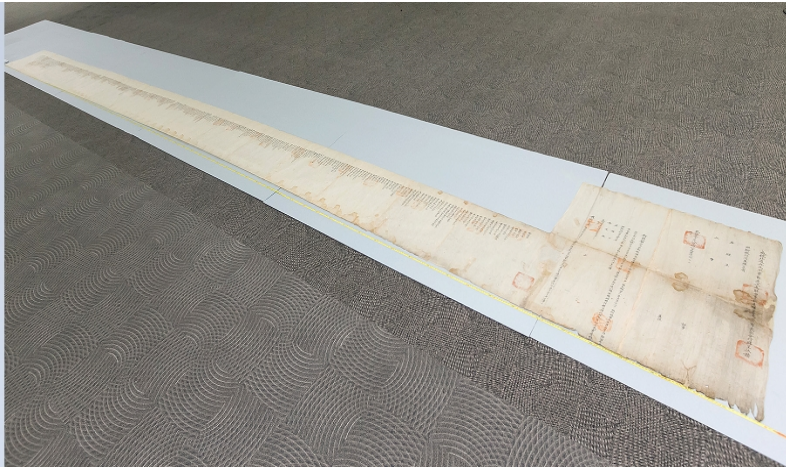
- ① 1785년(정조 9) 7월 26일 후임관 김세휘 →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解由牒呈
- ② 1785년(정조 9) 8월 초1일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 병조 解由牒呈

〈그림 3〉 해유문서의 전체 형태

9)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보물 제1537-1호(청구기호 한貴古朝61-77). 1장으로 된 채색 필사본 지도로, 크기는 세로 162.2cm 가로 191.4cm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만주지역까지 자세하게 군사적 정세를 나타낸 관방지도이다.

해유문서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85년(정조 9) 7월 26일 | 후임관 김세휘 →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 解由牒呈



行西北鎮兵馬倉節制使爲解由事 今准前倉使禦侮將軍尹鑣 乾隆四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政除授 甲辰正月初三日拜辭 同年二月初六日到任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遞代 今將仕月日 雜凡緣故 該管物件 逐一開坐 備細昭詳 解由 得此將本員姓名及實歷職掌 圖倉磨勘 照數叩數明白 另擬于後 爲此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 牒 呈
節 度 使
乾隆五十年七月二十六日 行倉使金<着名><署押>
解由

後前倉使尹鑣 去癸卯十二月二十八日政本職除授 甲辰二月初六日到任 乙巳七月二十六日遞去 實歷仕元五百三十日是乎事

印信壹
兵符壹
鐵頭口貳部
(중략)
除

(西北鎮倉使印 33個)

전임관 윤빈은 1753년(영조 29)에 단봉문(丹鳳門) 수문장(守門將), 1754년(영조 30)에 무겸(武兼), 1755년(영조 31)에 훈련원(訓練院) 주부(主簿), 1781년(정조 5)에 수문장을 거쳐 1783년(정조 7) 12월 28일에 서북첨사(西北僉使)에 임명되었다.¹⁰⁾ 1784년(정조 8) 1월 3일에 임금을 뵈고 하직인사를 올렸다. 한 달여 뒤인 1784년(정조 8) 2월 초6일에 서북진에 부임하였다. 이후 1785년(정조 9) 7월 26일에 체직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첨절제사와 만호의 임기는 90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윤빈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530일로 약 2년 6개월 동안 서북첨사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전임관 윤빈이 체직되기 한 달 전쯤인 1785년(정조 9) 6월 24일에 후임관 김세휘(金世徽)가 서북첨사로 임명되었다.¹¹⁾ 1785년(정조 9) 7월 26일자로 전임관 윤빈이 체직되자 후임관 김세휘는 곧바로 직속상관인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에게 해유첩정(解由牒呈)을 작성하여 전임관의 해유 사실을 보고한다. 이때 전임관 윤빈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을 후록하여 함께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군기(軍器)와 관련된 항목으로 인신(印信) 1개, 병부(兵符) 1개를 비롯하여 주로 각종 무기류의 품목과 수량이 열거되어 있다. 각 항목은 ㉠기존에 서북진에서 소관하고 있던 군기(軍器), ㉡‘將軍坡來上·斜下北來上·德萬洞來上’이라고 하여 장군파보(將軍坡堡), 사하북보(斜下北堡), 덕만동보(德萬洞堡)에서 관리하던 군기, ㉢‘庚子(1720년)別備·乙巳(1725년)別備·丙午(1726년)別備·丁未別備(1727년)·壬子(1732년)別備·乙酉(1765년)別備’라고 하여 해당 시기에 새로

1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4월 28일 계축;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2월 28일 임신; 『승정원일기』, 영조 31년(1755) 11월 28일 정유; 『승정원일기』, 정조 5년(1781) 7월 30일 경오;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12월 28일 을유

11)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6월 24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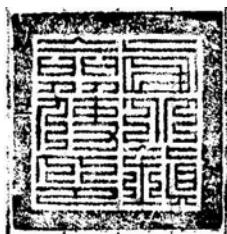
구비한 군기, ㉔'軍資倉還上實留庫·賑恤廳還上實留庫·常平廳還上實留庫·營置簿還上實留庫·乙亥賑餘還上實留庫·交濟倉還上實留庫·軍餉穀秩'이라고 하여 군자창, 진흥청, 상평청, 교체창 등에 실재 남아 있는 환곡과 군량곡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소관 물품 가운데 전적류는 『小學』 4卷, 『經國大典』 1卷, 『續錄』 1卷 등 경서나 법전서를 비롯하여 각종 병서(兵書)가 『陣書』 2卷, 『方略』 1卷, 『行軍須知』 1卷, 『兵將圖說』 1卷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 중앙군 조직인 오위(五衛)의 부대 편성과 군사 훈련의 기본을 밝힌 『병장도설』, 군사들이 평상시 또는 전투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공격과 방어에 관한 군사지식을 정리한 『행군수지』, 북방 야인의 침입을 대비하여 유사시에 북도의 병마절도사를 중심으로 도내의 전체 병력을 동원하는 체제의 방어 전술을 정리해 놓은 『제승방략』 등 군사를 훈련하고 전략을 익히는 병학서가 있다. 그리고 『新傳煮取放』 1卷, 『新傳火砲式』 1卷, 『火砲式齊藥煮取放』 1卷과 같이 17세기에 편찬된 화약 제조법과 각종 총을 쏘는 방법을 정리한 기술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존본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명조대 황달과 학질의 처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痘虐易解放』 1卷이 있다.

또한 문서 전면에는 '西北鎮僉使印'이라는 서북진의 관인이 찍혀 있다.



〈그림 4〉 후임관→절도사 해유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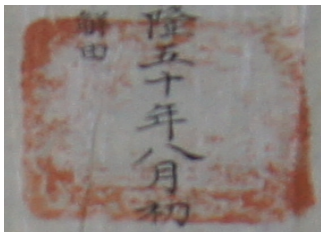


〈그림 5〉 西北鎮僉使印¹²⁾

② 1785년(정조 9) 8월 초1일 |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 병조 | 解由牒呈

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爲解由事 粘連牒呈是置有良尔 合行牒呈 伏請 照驗施行 須至牒呈者 右 牒 呈 兵 曹 乾隆五十年八月初一日 節度事閱<着名><署押>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 3個)	評事 虞侯
---	----------

절도사 민의혁은 관할 지역인 서북진의 후임관 김세휘가 올린 해유첩정을 접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1785년(정조 9) 8월 초1일에 해유첩정을 작성하여 병조에 보고하였는데 후임관이 올린 해유첩정을 함께 첨부하였다. 당시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는 1784년(정조 8) 8월 11일에 본직에 임명된 민의혁(閔義赫)이다.¹³⁾ 절도사가 병조에 올린 해유첩정에는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절도사→병조 해유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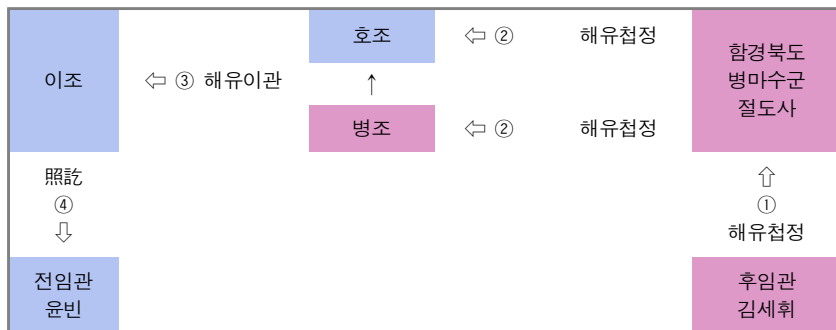
<그림 7> 咸鏡北道兵馬節度使印¹⁴⁾

12) 『印信謄錄』 2에 따르면 1818년(순조 12) 11월 초10일, 윤빈의 해유문서에 찍힌 인장은 1818년 이전에 사용하던 ‘西北鎮僉使印’

13) 『정조실록』 권18, 1784년(정조 8) 8월 11일 갑오

14) 『印信謄錄』 3권

조선시대 지방 관원의 해유절차에 따르면 당시 함경북도병마수군 절도사가 호조에 올린 해유첩정과 호조에서 이조에 보고한 해유이관 문서가 함께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고 후임관→절도사→병조에 보고한 해유문서 사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 자료를 통해 본 서북침사의 해유절차는 ‘후임관→함경북도병마절도사→병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만 현존하는 지방의 무관직 해유문서 사례를 통해 ‘후임관→함경북도병마절도사→병조·호조→호조→이조’까지의 해유절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8〉 1785년 서북진병마첨절제사 윤빈의 해유절차

3. 서북진의 군비 실태

1785년(정조 9)에 서북첨사 김세휘가 전 서북첨사 윤빈이 체직되면서 그로부터 인계받은 물목은 모두 335건¹⁵⁾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목이 기재된 문서는 전체 약 686.5cm 중에서

15) 해유문서에 기재된 군수품에 대한 상세내역은 실제 기록 순서대로 <부록>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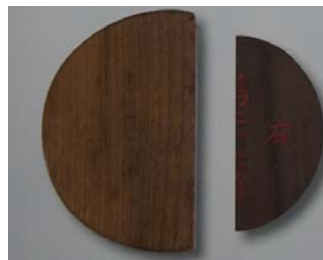
606cm로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목이 기록된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서북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이어 장군파보·사하북보·덕만동보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물목, 그리고 경자(1720)·을사(1725)·병오(1726)·정미(1727)·임자(1732)·을유(1765)별비(別備)라고 하여 해당시기에 별도로 마련한 물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군자창·진흙청·상평청·교제창 등에 실제 남아 있는 군량미를 기록해 놓았다.

제일 먼저 기재된 사항은 인신(印信)과 병부(兵符)이다. 인신은 관인을 말하고,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에 표지로 쓰이던 명령서 형식의 부절(符節)을 말한다.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절도사·진호(鎭號) 등을 기록하여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려 주면 지방관은 한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다.¹⁶⁾ 즉, 군대를 동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건인 까닭에 이관목록을 기재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작성하였다.



〈그림 9〉 병부주머니¹⁷⁾



〈그림 10〉 병부와 병부갑¹⁸⁾

1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925쪽.

17)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2012, 35쪽.

18) 육군박물관, 위의 책, 35쪽.

해유문서 이관목록에 기재된 군비는 크게 궁시류, 화약병기류, 무기류, 신호장비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군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궁시류

1) 활(弓)

『윤빈의 해유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玖張
備局黑角弓 貳拾玖張
常角弓 拾壹張
交子弓 柒拾壹張

〈장군파래상(將軍坡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貳張
交子弓 壹百拾肆張
常角弓 拾陸張

〈사하북래상(斜下北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交子弓 玖拾張
黑角弓 陸張

〈만덕동래상(德萬洞來上)〉에 기록되어 있는 활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黑角弓 參張

常角弓 參張

交子弓 陸拾柒張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북진에는 먼저 흑각궁은 49장이 있었다. 흑각궁은 물소뿔로 만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활이지만, 흑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만든 보조적인 활이 필요했다.¹⁹⁾ 교자궁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사용된 활이라고 볼 수 있다. 교자궁은 합성 목궁의 일종으로서, 각궁이 부족하거나 혹은 날씨가 습하여 각궁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그 대용으로 사용했다. 교자궁의 궁력은 비록 각궁에 비해 떨어지지만, 귀한 물소뿔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데다가 날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오군영과 각 지방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²⁰⁾ 서북진의 교자궁도 수량면에서 342장으로 흑각궁과 상각궁에 비해 보유 수량이 월등이 많았다. 상각궁은 30장이 있었다. 상각궁은 물소뿔 대신 황소뿔을 써 만든 활로서, 흑각궁에 비해 저렴²¹⁾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북진의 경우는 오히려 상각궁보다 흑각궁의 보유 수량이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9)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2004, 40-42쪽.

20) 박진철, 「1693년 중기를 통해 본 전라도 나주 목의 군비 실태」, 『동국사학』 46, 2009, 8쪽.

21)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수군 전선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2009, 471쪽.

〈표 1〉 활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흑각궁	38	2	6	3
상각궁	11	16	0	3
교자궁	71	114	90	67

2) 화살

『운빈의 해유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長箭 陸拾肆部拾貳介
 備局長箭 陸拾伍部
 別大長箭 貳拾捌部
 細長箭 壹千介
 片箭 伍拾部
 木片箭 壹百拾伍部
 備局片箭 伍拾部
 桶兒 參百柒拾貳介
 備局桶兒 伍拾介

〈장군파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貳百貳拾捌部拾介
 備局長箭 拾伍部
 別大長箭 肆部
 木長箭 玖部
 片箭 壹百柒拾伍部拾貳介

木片箭 參拾伍部
桶兒 貳百陸介

〈사하북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壹百伍拾肆部貳拾參介
備局長箭 拾參部
別大長箭 拾壹部
片箭 壹百參拾部貳拾伍介
桶兒 壹百肆拾壹介

〈만덕동래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長箭 壹百伍拾捌部貳拾貳介
片箭 壹百拾伍部拾玖介
桶兒 壹百貳拾伍介

위 기록을 통해 보면 장전의 전체 수량은 749부 67개이다.(세장전 1000개 제외) 장전의 한 묶음의 단위인 부(部)가 화살 30개이므로²²⁾ 이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751부 7개이다. 장전은 조선시대에 전투용으로 널리 쓰인 화살이다. 다음으로 편전이 있었다. 편전의 전체 수량은 671부



〈그림 11〉 편전과 통아)

22) ‘박진철, 「1693년 중기를 통해 본 전라도 나주 목의 군비 실태」, 『동국사학』46, 2009, 8쪽위의 논문, 11쪽’에서 장전 한 묶음의 단위인 부가 화살 30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26개이다. 편전²³⁾은 짧고 작은 화살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이름난 화살이다. 화살대의 길이 1척 2촌(37cm)이며, 사정 거리는 300~350보(270~315m) 정도로 활로 쏘는 화살로는 가장 멀리 날아갔다. 서북진이 보유한 편전의 수량을 보면 장전의 수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도 많은 양이다. 그만큼 서북진에서는 편전의 활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통(筒), 혹은 통아라는 기구에 끼워 발사해야 한다.²⁴⁾ 서북진에는 894개의 통아가 있었다.

〈표 2〉 화살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장전(부)	157부 12개 (세장전 1000개)	256부 10개	178부 23개	158부 22개
편전(부)	215부	210부 12개	130부 25개	115부 19개
통아(개)	422	206	141	125

나. 화약병기류

임진왜란 당시 화포류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별황자총통 등이 있었다고 한다.²⁵⁾ 그렇다면 임진왜란 이후

23) 편전은 통전(筒箭), 변전(邊箭), 동전(童箭), 애기살이라고 불리는 짧은 화살이다. 편전의 화살대 길이는 조선 초기의 『오례의』에는 주척(周尺)으로 1척 2촌(25센티)이라고 했으나, 나중에는 점차 그 길이가 길어져서 현종 13년에는 포백척 8촌(32센티)의 길이로 정해졌다. 편전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활만으로는 쏠 수가 없으며, 통아라고 불리는 반으로 쪼갠 나무 대롱에 넣어야 발사할 수 있다.(민승기, 앞의 책, 63-64쪽)

24) 통아의 길이는 일반 화살의 길이와 비슷하고 구조는 반쪽을 쪼개어 속을 비워 이곳에 편전을 넣어서 쏜다. 통의 한쪽 끝에 구멍을 뚫어서 작은 끈으로 팔에 매어 든다. 통을 통과해 시위를 벗어나면 빈 통은 손등을 향해 오게 되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살”)

25) 박재광, 「임진왜란기 조선군의 화약병기에 대한 일고찰」, 『군사』 제30호, 1995, 95쪽

18세기 함경도 북방지역 조선 육군의 주력 화기(火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북진에는 임진왜란 때처럼 규모가 큰 화포류는 대질러포(大疾黎砲) 2위(位)²⁶⁾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 승자총통 또는 조총과 같은 소총류²⁷⁾가 주로 화기로 사용되었다. 질러포는 임진왜란 이전에 개발된 포류(砲類)로 임진왜란 중 질러포가 사용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 수록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²⁸⁾ 질러포가 『윤빈 해유문서』에 2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북진에서도 나름대로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승자총

휴대용 화기인 승자총통²⁹⁾은 김지(金輝)³⁰⁾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존 유물³¹⁾로 보아 선조 10년(1577) 이전에 개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승자총통은 종래의 소화기(小火器)보다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화기를 보유하지 못한 야인들의 격퇴에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³²⁾ 서북진에만 가지고 있는 승자총 계열은 7종

26) 질러포의 단위가 ‘위(位)’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27) 천자총통·지자총통과 호준포(虎蹲砲), 불랑기 등을 대포로 분류하고, 조총과 쌍안총, 백자총, 대·소승자총 등은 총으로 분류하였다.(유승주, 『조선후기 총포류 연구』, 『군사』제33호, 1996, 118쪽)

28) 유승주, 앞의 논문, 125쪽.

29) 승자총통은 종전의 총통에 비해 총열이 길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도 높았다. 『화포식언해』에 승자총통은 가죽 것이 달린 나무 화살을 쏘면 600보가 나간다고 했고, 칠환은 15개를 한 번에 발사한다고 했다. 승자총통은 주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총이 전래된 이후에도 보조적인 화기로 널리 사용되었다.(민승기, 앞의 책, 221쪽)

30) 『선조실록』17, 선조16년 6월 11일 신유

31) 현재 경희대박물관에 선조 10년(1577)에 주조된 소승자총통, 육군박물관에 선조 14년(1581)에 만들어진 승자총통이 전해오고 있다.

32) 박재광, 『임진왜란과 화약병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쪽.

류³³⁾이며 수량은 62자루이다. 함경도지역은 선초부터 화기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³⁴⁾, 승자총통과 같은 소총류가 정조대까지도 꾸준히 구조되어 북변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표 3〉 승자총의 명칭과 수량

총통 명칭	수량(병)
대승자총통(大勝字銃筒)	9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27
소승자총통(小勝字銃筒)	16
소백자총통(小百字銃筒)	6
별양자총통(別樣字銃筒)	1
주자총통(宙字銃筒)	1
쌍자총통(雙字銃筒)	2
총계	62

승자총과 함께 살펴볼 것이 수철환(水鐵丸)이다. 수철환은 총통에 사용된 무쇠탄환을 말한다. 서북진 본진에 보유하고 있는 수철환은 모두 3,380개, 장군과는 150개, 사하북은 4,224개, 만덕동은 4,480개이다.

2) 조총

본진과 장군과, 사하북, 덕만동에 있는 조총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鳥銃 貳百參拾捌柄

33) 차승자총통은 승자총통보다 구경(口徑)이 적은 총통이고, 소승자총통은 기존의 승자총통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서울대 규장각 소장)에 그림이 나와 있다. 쌍자총통은 승자총통 두 개를 병렬로 붙여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34) 『세종실록』68, 세종 17년 4월 기유, 『세종실록』77, 세종 19년 6월 정묘

貳拾肆柄
 貳拾陸柄
 拾捌柄
 拾肆柄
 肆拾玖柄

조총은 1550년경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던 화기로서, 조선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에 처음으로 제작에 성공하였다.³⁵⁾ 1599년(선조 27) 2월에 훈련도감은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분군법(束伍分軍法)과 삼수병제(三手兵制)에 따라 입시기구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어엿한 군영으로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훈련도감의 창설로 조선군의 전술은 종래의 궁시 위주에서 포(조총 포함)·살(창검) 위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조총을 포함한 각종 화약병기의 개발이 크게 촉진되었다.³⁶⁾ 서북진에도 이를 반영한 듯 본진에서 보유한 조총은 238자루이고, 장군파, 사하북, 덕만동에서 각각 50자루·32자루·49자루가 반입되어 실제 서북진이 보유한 조총은 모두 369자루이다. 『윤빈의 해유문서』 자료에 나타난 조총의 보유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총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238	50	32	49

조총과 함께 살펴볼 것은 조총의 탄환인 연환(鉛丸)과 화약이다. 1720년 즉, 경자년부터 ‘별비’라고 해서 1725(을사)·1726년(병오)·1727(정미)·1732년(임자)·1765년(을유)까지 모두 6차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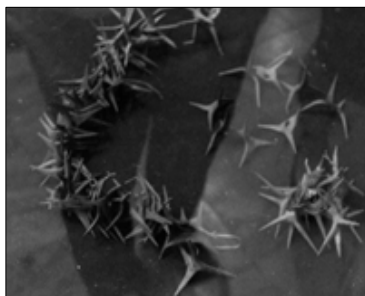
35) 민승기, 앞의 책, 257쪽.

36) 박재광, 앞의 석사논문, 52쪽

걸쳐 군비가 추가 되었다. 추가된 군비 중에서 주목되는 사항이 바로 연환과 화약이다. 연환은 기존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가 병오·정미·임자년에 각각 1651개, 2980개, 5000개 각각 추가되었다. 화약의 경우도 만덕동에서 반입되어 온 44근만 있었는데 병오·정미·임자년 3해에 걸쳐 화약 277근이 증강되었다.

3) 무기류

무기류는 검과 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검은 다양한 종류 중에서 서북진의 경우는 환도(環刀)³⁸⁾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량은 138자루이다. 창(槍)의 경우는 검에 비해 6가지 종류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5>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창(槍)의 종류는 창(槍)·왜창(倭槍)·당파창(鎗鈹槍)³⁹⁾·



<그림 12> 마름쇠[능철]³⁷⁾

구창(鉤槍)⁴⁰⁾·협도곤(俠刀棍)⁴¹⁾·거마창(拒馬槍)⁴²⁾ 등이 있었다. 서북진에는 창은 114자루, 왜창은 30자루, 당파창은 19자루, 구창은 24자루, 협도곤은 82자루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거마창의 경우는

37) 육군박물관 소장

38) 조선시대에는 긴 외날을 가진 단병기는 대부분 환도라고 하였다.(민승기, 앞의 책, 108쪽)

39)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병기이다. 길이는 7척 6촌(159.6cm)이고 무게는 5근(3.2kg)이다. 『무예도보통지』에 중국식 당파와 조선식 당파가 그려져 있는데, 조선식은 좌우의 날을 별도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긴 날을 끼워서 제작했다.(민승기, 앞의 책, 175쪽)

40) 갈고리가 달린 장병기로서 구철(鉤鐵)이라고도 한다.(민승기, 앞의 책, 179쪽)

41) 타격 무기인 곤방에서 비롯된 무기로서, 자루의 길이는 7척, 날의 길이는 5촌(10.5cm)이다.(민승기, 앞의 책, 178쪽)

42) 기마병을 막기 위해 창을 비스듬히 세우고 횡목(橫木)에 꿰어 만든 울타리로, 전쟁 때 성문 밖이나 요해처(要害處) 등 중요한 군사 거점에 설치하여 적의 기병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사용하였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1, 2001, 209쪽)

보유한 수량은 208총인데, 창(槍)의 종류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병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만든 것으로 다른 창과 달리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가 총(叢)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타격기의 한 종류인 나무 몽둥이인 대봉목(大捧木)도 70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의 주변이나 적이 오는 길목에 뿌려놓는데 사용하는 능철(菱鐵, 마름쇠라고 함)⁴³⁾이 4,998개가 있었다. 같은 시기 길주목이 보유하고 있던 능철이 8천개였는데⁴⁴⁾, 길주목에 소속된 진보(鎭堡) 중 가장 큰 곳답게 서북진이 절반 이상 능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무기류 보유 현황

	본진	장군파	사하북	만덕동
환도	111	10	8	9
(장)창	41	41	4	28
왜창	30	-	-	-
당파창	16	-	3	-
구창	16	3	3	2
협도근	20	17	35	10
거마창	124(叢)	20총	28총	36총

43) 여철(藜鐵)·질러철(蒺藜鐵)·철질러(鐵蒺藜)이라고도 한다. 끝이 뾰족하며 어떠한 상태로 놓아두어도 한 쪽 끝은 위로 향한다. 도둑이 다니는 길목이나 진지에서 적이 침범해 올 때에 뿌려두면 발에 찔리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적의 말발에도 찔리면 말이 달릴 수가 없다.(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동국사학』46, 동국사학회, 2009, 20쪽 주석 42번 참조)

44)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 함경도 부분은 31책에서 35책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길주목은 32책에 수록되어 있다. 길주목 읍지 33개의 항목 중 「창고(倉庫)」 항목에서 군기고에 수록된 능철의 수량은 8,000개였다.

라. 신호장비류

신호장비류는 군사 신호에 사용되는 것들로,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이를 ‘형(形)⁴⁵⁾과 명(名)⁴⁶⁾’이라고 하였다.⁴⁷⁾ 『병학지남(兵學指南)』에도 “눈으로 보는 것을 ‘형’이라 하고 귀로 듣는 것을 ‘명’이라 하여 기는 색으로 신호하는 것이고 북은 소리로써 신호하는 것으로, 장수와 군사들은 귀로 악기소리를 듣고 깃발로 방향과 색깔을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장에서의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의 전투에서는 깃발과 북, 징 등이 유일한 명령 전달수단이었으며, 따라서 보다 잘 정비된 신호체계를 지닌 부대가 전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다.⁴⁸⁾

1) 군기[軍旗, 形]

군기는 각부대장의 소속과 직위를 구분표시하고 장수를 부르고 명령을 내리며 명을 받고 복명할 때 사용하였다.⁴⁹⁾ 서북진이 보유하고 있었던 군기를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군기 보유 현황

본진	각색기(各色旗) 43면
장군파	일부사통기(一部四統旗) 11면 사면문기(四面門旗) 4면 치총기(雉總旗) 8면 사면성장기(四面城長旗) 6면
사하북	각색기 15면 수성조련시각방색기(守城操鍊時各方色旗) 16면 기총기(旗總旗) 1면 대장기(隊長旗) 4면
만덕동	중오방신기(中五方神旗) 5면 오방고초기(五方高招旗) 5면 사방각기(四方角旗) 8면 표미기(豹尾旗) 1면

45) 형은 형체,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대표지, 깃발 등에 의한 신호를 말한다.

46) 명은 소리, 즉 북, 나팔, 종 등의 악기에 의한 신호를 말한다.

47) “孫子曰凡治衆如治寡 分數是也 鬪衆如鬪寡 形名是也”(『孫子兵法』, 「兵勢篇」)

48) 민승기, 앞의 책, 391쪽.

49) 육군박물관, 『조선 군사신호체계 形名』, 2014, 7쪽.

경자별비	방방사주순시기(藍紡紗紬巡視旗) 1쌍 남방사주영기(藍紡紗紬令旗) 1쌍 삼승순시기(三升巡視旗) 1쌍 삼승영기(三升令旗) 1쌍
병오별비	남대단순시기(藍大段巡視旗) 1쌍 남대단영기(藍大段令旗) 1쌍
임자별비	오방신기(五方神旗) 5면 각기(角旗) 8면 고초기(高招旗) 5면 표미기(豹尾旗) 1면
을유별비	오방신기 5면 각기 8면 고초기 5면 표미기 1면

서북진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비 중 군기류(軍旗類)가 많은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해유문서에는 별비로 추가된 것을 포함하면 171점에 달하는 각종 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각색기 58면을 비롯해서 일부사통기 11면, 문기 4면, 치총기 8면, 성장기 6면, 수성 조련 때 사용하는 각방색기 16면, 기총기 1면, 대장기 4면, 중오방신기 5면, 오방고초기 5면, 사방각기 8면, 표미기 1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720년 ‘경자별비’부터 군기가 순시기와 영기가 새롭게 제작되었던 것 같다. 서북진에서 구비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군기의 구체적인 형태나 크기, 그리고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도 있지만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존하는 군기 중에 [그림 13]과 같이 육군박물관에는 순시기를 비롯해서 영기, 고초기, 표미기가 소장되어 있어서 군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서북진에서 갖추고 있던 군기를 보면 보군(步軍)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였던 홍(紅)·남(藍)·황(黃)·백(白)·흑(黑) 등 5색의 중오방 신기(神旗)를 비롯해서 권위와 기운을 상징하는 표미기⁵⁰⁾와 순

50) 표범의 꼬리가 두 구비로 꺾어진[折] 것을 그린 것으로, 길이가 7척이며, 깃대의 높이는 9척. 영두(纓頭)·주락(珠絡)·치미가 있다. 일정한 자리에 세워 두어

시기, 명령을 전달하는 영기 등 군사의 지휘에 필요한 군기들이 갖추어 있다.

아울러 군기류의 단위는 주로 ‘면(面)’을 사용하였는데, 순시기와 영기에 대해서만 ‘쌍(雙)’을 사용한 점도 유의할 점이다.



〈그림 13〉 순시기⁵¹⁾



〈그림 14〉 문기⁵²⁾

2) 약기[名]

접전에서 나아감과 물러남, 진퇴의 중요한 움직임을 신호하는 것은 바로 약기이다. 그 중에서 북은 군사들에게 전진을 명령하거나 전투에 임하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북진에는 중고와 소고 두 종류의 북이 있었으며, 행군 시 말을 타고 치는 북인 비고(鼙鼓)⁵⁴⁾도



〈그림 15〉 솔발⁵³⁾

마음대로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며, 기한을 정하여 밖에 나아가게 하고, 기한보다 늦게 들어오는 자를 행형(行刑)하도록 함.(『萬機要覽』「軍政篇」1 形名制度)

51)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43쪽.

52)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29쪽.

53)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74쪽.

54) 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65쪽.

2좌를 가지고 있었다. 징은 기본적으로 정지를 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서북진에는 중징[中錚]과 소징[小錚] 두 종류가 있었다. 한편, 대형을 통제하는 악기로 나팔[喇叭]⁵⁵⁾과 솔발[撻鉢]⁵⁶⁾이 있는데 서북진 역시 나팔 2쌍과 솔발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함경도 서북진에서 작성된 해유문서를 통하여 18세기 실제 서북진 진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군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해유문서 물목에 기록한 순서는 서북진의 보유 물목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이어 장군파보·사하북보·덕만동보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물목, 경자(1720)·을사(1725)·병오(1726)·정미(1727)·임자(1732)·을유(1765) 별비(別備)라고 하여 해당시기에 별도로 갖추어 놓은 물목, 그리고 군자창·진홍청·상평청·교제창 등에 실제 남아 있는 군량미순이었다.

서북진 보유 목록은 가장 먼저 인신(印信)과 병부(兵符)이다. 군대를 동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까닭에 이관목록을 기재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작성하였다.

해유문서 이관 목록에 기재된 군비는 궁시류, 화약병기류, 무기류,

55) 나팔은 길이가 긴 금속 관악기로서, 철절(鐵笛)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5척이고 밑은 가늘며 끝은 넓다. 아침에 나팔을 한 번 불면 군사들에게 기사를 하여 밥을 지으라는 뜻이고, 두 번 불면 식사를 하고 각자의 구역으로 집결하라는 것이며, 세 번 불면 장수가 담당 구역으로 나간다는 뜻이다.(박진철, 앞의 논문, 23쪽)

56) 솔발은 대오를 정리하고 원으로 분리하며 단파개의 직선분열에 반대되면 특히 살수의 신호에 쓰였다.(육군박물관, 앞의 도록, 74쪽)

신호장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궁서류는 활과 화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활은 흑각궁, 상각궁, 교자궁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수량면에서는 교자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화살은 장전과 편전 두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장전은 세장전 1000개를 제외하고 751부 7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편전은 671부 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북진이 보유한 편전의 수량을 보면 장전의 수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양이어서 함경도 전방에도 편전의 활용도가 높았다.

함경도지역은 선초부터 화기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며 승자총통과 같은 소총류가 정조대까지도 꾸준히 주조되어 북변에 배치되었는데, 서북진의 경우도 『해유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화약 병기류는 승자총과 조총과 같은 소총류가 주요 화기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승자총에 사용된 무쇠탄환인 수철환, 조총의 탄환인 연환과 화약의 수량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다. 연환과 화약의 경우는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지 않다가 이후 ‘별비’를 통해 추가되어 새롭게 증강되었다.

무기류는 검과 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검은 환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창은 창은 검에 비해 6가지 종류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의 주변이나 적이 오는 길목에 뿌려놓았던 능철의 경우는 4,998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같은 시기 길주목이 보유하고 있는 능철이 8천개였는데, 길주목에 소속된 진보 중 가장 큰 곳답게 서북진이 절반 이상의 능철을 보유하고 있었다.

군사신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장비류는 서북진에는 다양한 색깔의 기를 비롯하여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오방신기(五方神旗)·각기(角旗)·고초기(高招旗)·표미기(豹尾旗)·문기(門旗) 등 171점에 달하는 많은 수량의 군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리로 신호하는 악기로는 북·징·나팔·솔밭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해유문서는 100여 건 정도이고 이 중 지방 무관직 관원의 해유문서는 7건으로 매우 적은 수량이다.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지방의 무관직 관원의 해유문서 사례이고 더욱이 현전 유일한 함경도 지역의 해유문서 사례로서 18세기 함경도 서북진 지역의 군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특히 18세기 북방 지역의 군기 현황과 규모, 군비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10.11, 심사수정일: 2016.2.12,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북방지역, 군수품, 함경도, 서북진, 18세기, 해유문서, 해유절차, 첩정, 무관직, 윤빈

〈부록〉 해유문서에 수록된 물품

	보유물목	수량
1	印信	1
2	兵符	1
3	鐵頭口	2部
4	鐵甲	5部
5	各色頭口	35部
6	黑角弓	9張
7	備局黑角弓	29張
8	常角弓	11張
9	交子弓	71張
10	長箭	64部12介
11	備局長箭	65部
12	別大長箭	28部
13	細長箭	1000介
14	片箭	50部
15	木片箭	115部
16	備局片箭	50部
17	大勝字銃筒	3柄
18	木藥升·木鐵釘·木鎚	各1介
19	皮翎箭	100介
20	水鐵丸	1975介
21	次勝字銃筒	13柄
22	木藥升·木鐵釘·木鎚	各1介
23	水鐵丸	900介
24	小勝字銃筒	6柄
25	木藥升·木鐵釘·木鎚	各1介
26	水鐵丸	300介
27	鳥銃	238柄
28	小百字銃筒	6柄
29	木藥勝·木鐵釘	各1介
30	水鐵丸	205介
31	吐虎箭	70介
32	各字水箭	498介
33	大發火	17介
34	大疾黎砲	1位
35	各字水鐵丸	3861介
36	藥線	96沙里10條5寸半
37	鐵藥升	1介
38	環刀	111柄
39	槍	41柄
40	倭槍	30柄
41	拒馬槍	124叢
42	鍍鈹槍	16柄

43		鈎槍	16柄
44		俠刀棍	20柄
45		各色旗	43面
46		轟	1坐
47		中鼓	2坐
48		中錚	1介
49		小鼓	2坐
50		小錚	4介
51		鉦鉞	1介
52		鼙鼓	1坐
53		桶兒	372介
54		備局桶兒	50介
55		木吹羅	5柄
56		掩心甲	11部
57		陵鐵	2740介
58		軍器鎖金	1介
59		貳盆入里釜子	1坐
60		壹盆入里釜子	1坐
61		鼎子	1坐
62		柳羅韜長箭家俱	30部
63		防牌接圓并	300立
64		陣書冊	2卷
65		小學	4卷
66		疸虐易解放冊	1卷
67		震天雷放砲式冊	2卷
68		經國大典冊	1卷
69		續錄冊	1卷
70		方略冊	1卷
71		行軍須知冊	1卷
72		兵將圖說冊	1卷
73		軍餉造米	1石3斗
74		田米	41石7斗
75		太	5石13斗
76		布弓家	130條
77		軍營	5間
78		鉏鐵	300介
79		膳牌	3立
80		大捧木	300介
81		軍額	791名
82		烽軍	47名
83		哨官旗隊長旗竹	8介
84		帳幕伍浮黃色	長15尺20幅付
85		鐵鋒	30介重12兩式
86		弓絃	136條

87		火繩	361沙里
88		喇叭	1雙
89		伍拾稱子	1介
90		柒斤稱子	1介
91		參斤稱子	1介
92		帳幕	21浮
93	將軍坡來上		
94		黑角弓	2張
95		交子弓	114張
96		常角弓	16張
97		長箭	228部10介
98		備局長箭	15部
99		別大長箭	4部
100		木長箭	9部
101		片箭	175部12介
102		木片箭	35部
103		桶兒	206介
104		柳羅韜	20部
105		藥線	20沙里16條半
106		鍤火箭	23介
107		大勝字銃筒	2柄
108		水鐵丸	150介
109		皮翎箭	10介
110		鐵甲	2部
111		鐵頭口	5部
112		長槍	41柄
113		環刀	10柄
114		鳥銃	24柄
115		備局鳥銃	26柄
116		小勝字銃筒	4柄
117		次勝字銃筒	8柄
118		軍餉田米	35石2斗5刀
119		小錚	1介
120		防牌	7立
121		貫革	1立
122		小鼓	1坐
123		中鼓	1坐
124		木吹羅	4柄
125		鋅鈸	1介
126		陵鐵	517介
127		一部四銃旗	11面
128		四面門旗	4面
129		雉總旗	8面
130		藤牌	1立

131		鈎槍	3柄
132		俠刀棍	17柄
133		拒馬槍	20叢
134		大捧木	200介
135		四面城長旗	6面
136		帳幕	4部
137		弓絃	132條
138		布弓家	132條
139		燭籠燈	20介
140		喇叭	1雙
141		小隱藏箭	5介
142		伍拾斤稱子	1介
143		柒斤稱子	1介
144		參斤稱子	1介
145	斜下北來上		
146		交子弓	90張
147		黑角弓	6張
148		長箭	154部23介
149		備局長箭	13部
150		片箭	130部25介
151		別大長箭	11部
152		鐵頭口	12部
153		環刀	8柄
154		桶兒	141介
155		吐虎箭	1部12介
156		大勝字銃筒	1柄
157		水鐵丸	625介
158		次勝字銃筒	4柄
159		水鐵丸	1890介
160		小勝字銃筒	1介
161		水鐵丸	1000介
162		別樣字銃筒	1柄
163		水鐵丸	40介
164		馬上銃	4柄
165		宙字銃筒	1柄
166		水鐵	412介
167		雙字銃筒	1柄
168		水鐵丸	257介
169		藥線	130沙里
170		連鎖陵鐵	200介
171		槍	4柄
172		錚	4介
173		鐵甲	6部
174		軍餉田米	23石2斗3升

175		(軍餉)粟	10石
176		(軍餉)牟	18石
177		中鼓	1坐
178		小鼓	2坐
179		各色旗	15面
180		木吹羅	2柄
181		拒馬槍	28叢
182		柳羅韜長片箭家俱	20部
183		鉛丸櫃·火藥櫃并	9坐
184		布弓家	98條
185		弓絃	98條
186		俠刀棍	35柄
187		鍤鈹槍	3柄
188		鈎槍	3柄
189		大捧木	100介
190		藤牌	2立
191		倭槍	15柄
192		鳥銃	18柄
193		備局鳥銃	14柄
194		守城操鍊時各方色旗	16面
195		旗總旗	1面
196		隊長旗	4面
197		砲手帳幕	3浮
198		喇叭	1雙
199		百斤稱子	1介
200		伍拾斤稱子	1介
201		柒斤稱子	1介
202		三斤稱子	1介
203	德萬洞來上		
204		鐵甲	14部
205		鐵頭口	16部
206		黑角弓	3長
207		常角弓	3張
208		交子弓	67張
209		長箭	158部22介
210		片箭	115部19介
211		掩心甲	6部
212		桶兒	125介
213		防牌	30立
214		吐虎箭	18介
215		中錚	1介
216		小錚	4介
217		中鼓	1坐
218		小鼓	3坐

219		各字銃筒水鐵丸	1432介
220		大勝字銃筒	3柄
221		水鐵丸	1080介
222		木藥升木鐵釘	各1介
223		次勝字銃筒	2柄
224		水鐵丸	860介
225		木藥勝木鐵釘	各1介
226		小勝字銃筒	5柄
227		水鐵丸	968介
228		鐵釘	3介
229		木鐵釘	2介
230		木藥升木鎚	各1介
231		藥線	85沙里8條7寸
232		旗麾	14立
233		槍	28柄
234		鈎槍	2柄
235		環刀	9柄
236		大蒺藜砲	1位
237		陵鐵	541介
238		釜子	2坐
239		鋅鉢	1介
240		勝字水箭	100介
241		木釘	15介
242		雙字銃筒	1柄
243		水鐵環	140介
244		鋇鐵	1100介
245		木吹羅	6柄
246		喇叭	1雙
247		鼎子	1坐
248		鑿鼓	1坐
249		馬鐵	5部
250		柳羅韜	10部
251		拒馬槍	36叢
252		布弓家	73條
253		俠刀棍	10柄
254		大捧木	100介
255		藤牌	1立
256		鳥銃	49柄
257		帳幕	3浮
258		弓絃	73條
259		帳布	36幅付1浮
260		軍糧田米	25石3斗1升8夕
261		(軍糧)太	5石5斗7刀
262		(軍糧)粟	4石8升

263		伍拾斤稱子	1介
264		柒斤稱子	1介
265		參斤稱子	1介
266		鉛環	5901介
267		中五方神旗	5面
268		五方高招旗	5面
269		四方角旗	8面
270		豹尾旗	1面
271		大鼓	4坐
272		大錚	1介
273		三穴銃	3柄
274		中發火	4柄
275		火藥	44斤11兩8錢5分
276		大錠絞	1介
277		新傳煮取放冊	1卷
278		弓弩	40介
279		藥線桶	60介
280	庚子別備		
281		火藥鉛丸入盛櫃子	36坐
282		陵鐵	1000介
283		藍紡紗紬巡視旗	1雙
284		藍紡紗紬令旗	1雙
285		三升巡視旗	1雙
286		三升令旗	1雙
287		軍牢紅氈笠	1雙
288		軍牢所着紅衣	1雙
289	乙巳別備		
290		新傳火砲式冊	1卷
291		手弩	60介
292		勝字機械木	13介
293	丙午別備		
294		手弩弓	40介
295		火藥	88斤1兩8錢
296		藍大段巡視旗	1雙
297		藍大段令旗	1雙
298		軍牢紅氈笠	1雙勇字俱
299		鉛丸	1651介
300	丁未別備		
301		火藥	89斤11兩7錢伍分
302		鉛丸	2980介
303		手弩弓	60介
304		南象桶	60介
305	壬子別備		
306		火藥	100斤

307		入盛布帛	2介
308		火藥入盛櫃子	2坐
309		鉛丸	5000介
310		鉛丸入盛櫃子	1坐
311		五方神旗	5面
312		角旗	8面
313		高招旗	5面
314		豹尾旗	1面
315	乙酉別備		
316		五方神旗	5面
317		角旗	8面
318		高招旗	5面
319		豹尾旗	1面
320		火炮式劑藥煮取放冊	1卷
321		喇叭	1雙
322	軍資倉還上實留庫		
323		田米	3石8斗5刀1合9夕9里9分
324		牟	104石1刀6合3里3分
325		稷	38石10斗4刀4合1夕2里7分
326	賑恤廳還上實留庫		
327		田民	15石9斗5刀2合7夕8里6分
328		粟	18石3斗1合9夕9里7分
329	常平廳還上實留庫		
330		耳麥	49石12斗6刀7夕6里
331	營置簿還上實留庫		
332		田米	
333		粟	
334		牟	
335	乙亥賑餘還上實留庫		
336		田米	
337		粟	
338		稷	
339		牟	
340		耳麥	
341	交濟倉還上實留庫		
342		田米	
343		牟	
344		太	
345		粟	
346	軍餉穀秩		
347		田米	
348		造米	
349		太	
350		粟	
351	際		

<ABSTRACT>

Understanding the Military Supplies of Northern Territory in the 18th Century through historical manuscript

Kim, Hyo-kyoung, Lee, Hye-e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munitions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 and to investigate the military preparedness of that time through haeyu documents of North Hamgyoung Province, written in 18th Century.

It contains the military supply list of the army in the northwestern region, munitions of *bo*, separately secured munitions called *byeolbi*, and rice.

The first items of the military supply list of the army in the northwestern region are *inshin* and *byeongbu* and they seemed to be recorded first because they are the most important military supplies when mobilizing the army. According to the list of items transferred recorded in the haeyu documents, they possessed three types of bows (*heukgakgung*, *sanggakgung*, and *gyojagung*) and two types of arrows (*jangjeon* and *pyeonjeon*). Considering that the amount of *pyeongjeon* owned by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was similar to the amount of *jangjeon*, the frontal Unit North Hamgyoung Province is assumed to use *pyeonjeon* a lot. As for explosive weapons, they possessed 62 guns of seven types including *daeseungja-chongtong*. Firearms were widely used in North Hamgyoung Province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It was found that rifles such as *seungja-chongtong* were made and supplied to the northern territory until the era of King Jeongjo. Critical weapons including swords and spears were found to be very small in quantity, compared to bows, arrows and explosive

weapons. As for signal equipments used for military signals,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was found to have flags of various colors and musical instruments for sound signals such as drums, gongs, and bugles. In case of defensive equipments, they had shields and caltrops (caltrops). According to the haeyu documents, the army of the northwestern region had 4,998 caltrop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quantity of 8,000 caltrops owned by *giljumok*. In addition to weapons, the haeyu documents contain records of clothes, weapon materials, and military books.

Approximately 100 items of the haeyu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are still remained. Among them, only seven documents of regional officials are existed. In this study, the haeyu documents of regional officials, which are very significant materials as the haeyu documents of Hamkyoung Province, were surveyed.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military status, scale, and military preparedness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in the 18th century, could be empirically investigated.

Key Words : Northern Territory, Military Supplies, Munitions, Inventory Document, 18th Century, Military officer, Military post, Hamkyoung Province, certificate of discharge, haeyu